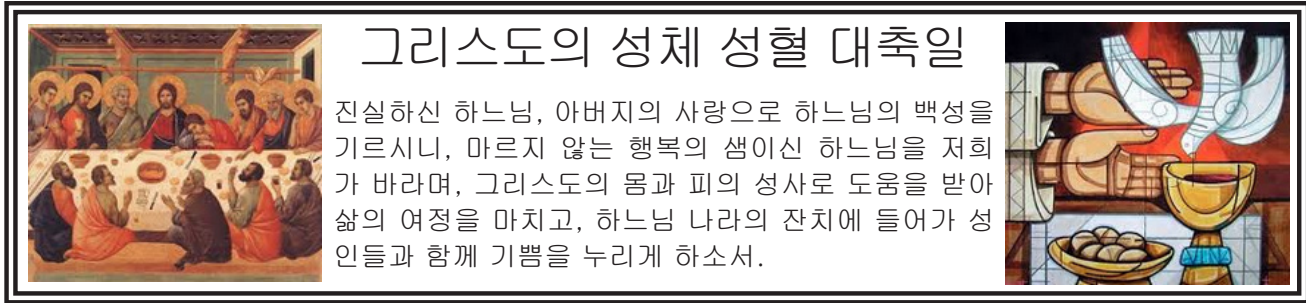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진실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기르시니, 마르지 않는 행복의 샘이신 하느님을 저희가 바라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사로 도움을 받아 삶의 여정을 마치고,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 성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6월 기도지향

- 유길수 크리스토퍼, 유경애 아네스 가정
- 이우영 가브리엘, 김수연 율리안나 가정

☞ 교황님의 기도 지향 : 실업자들이 품위 있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과 일자리를 찾도록 기도합니다.

예수 성심 성월

교회는 해마다 유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과 묵상을 강조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호소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마태26,38).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11,2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시며 하느님이시기에 그 마음은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신심미사

- 예수성심미사 : 7/4(금) 오전 10시, 십자가의 길(미사 후)
- 성모성심미사 : 7/5(토) 오전 10시, 묵주의 기도(미사 30분 전)

견진증명서

지난 3/28, 홀리트리니티에서 견진성사를 받으신 형제자매님들은 견진증명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세례 본당에 견진성사를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감사에 따른 지침

- 헌금/교무금 수납자 별도 선정
- 재무 대리 육성
- 재정보고 Quickbooks 침삭(번역) 금지
- Quickbooks 파일 백업과 재정 서류 보관 철저

평협회의

- 일시 : 6/22(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기타

- 지난 주, 청주교구 사제모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주일(6/29)은, 주임신부님의 영명축일과 서품기념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도하며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역회의 결정대로 6~8월까지 구역모임은 없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울	성 체	마 침
168	212	169/182	39

주일미사 복사

	향 복사	시종 복사
금주	차서은 (세라피나)	고영방 (스테파노)
	고평원 (프란치스코)	안광민 (야 고 보)
차주	문호진 (안토니오)	문석찬 (요 셉)
	문예나 (요 안 나)	정병훈 (보니파시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 네 스)	차호섭 (요 셉) 최선윤 (마 리 아)
차주	박혜정 (카타리나)	홍순익 (마르티노)
		최은미 (아 네 스)

애찬 봉사자

금주	김시연, 신혜경, 조경희, 김말자, 배복선
차주	다 함께

헌금 봉사자

금주	정수한 (베 드 로), 김병철 (베네딕토)
차주	김태중 (예레미아), 문석찬 (요 셉)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6/15	85명	360불	950불
김화년, 이우석, 이현주, 정석원, 김정원(총 5세대)			

☞ 안동현 프란치스코 형제님의 감사헌금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4년 6월 22일

캔사스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살아 있는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몸을 모시는 이 미사에 기쁘게 참여하여 우리도 주님 안에 깊이 머무르는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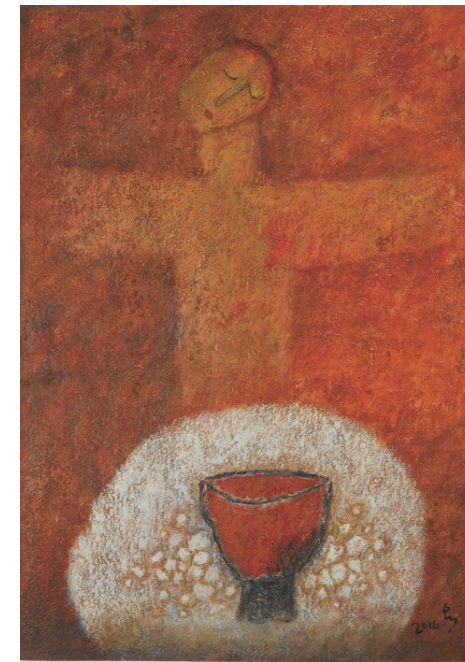
성화해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쫄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 6,51)

성체 성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고 정점입니다. 성체를 받아모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살과 피가 되신 이 큰 신비는 사랑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신명 8,2-3.14ㄴ-16ㄱ < 하느님께서서는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양식을 먹게 해 주셨다. >



◎ 예 루 살 렘 아 주 님 을 찬 양 하 여 라

○ 주님을 찬양하여라, 예루살렘아. 시온아, 네 하느님 찬양하여라.
네 성문 자물쇠를 굳게 하시고, 네 안의 자손에게 복을 내리셨도다. ◎

○ 네 강토에 평화가 깃들이게 하시고, 밀곡식 그 진미로 너를 배불리시도다.
당신의 말씀을 땅으로 보내시니, 그 말씀 날래게도 지쳐 가도다. ◎

○ 주님께서 당신 말씀 야곱에게 내리시고, 당신 법과 계명을 이스라엘에 알리셨으니.
어느 백성에게도 이같이 아니하셨고, 그들에게 당신 계명 아니 알리셨도다. ◎

제 2 독 서 : 1코린 10,16-17 <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 음 : 요한 6,51-58 <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

쉐 마

“머물고 기억하며 행하라!”



오늘은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체성사를 특별히 기념하고 그 사랑의 신비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 속에 당신의 몸을 담아 주신 성체성사의 본질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있던 본당에는 빈첸시오회가 있었습니다. 빈첸시오 정신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과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빈첸시오 회원들은 본당과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김장 김치를 담가서 나눠 주기도 했고, 설날에는 불고기를 양념해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이발 봉사도 시작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차량 봉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적 도움만이 아니라, 쓸쓸하고 외로운 분들에게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신축하는 것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지만, 지역 사회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과 가난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은 하느님 보시기에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하며, 자살률이 증가하고 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 간에 대화가 사라지고, 주변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먼저 생각하고, 경제적인 부의 창출을 생각하고, 나만의 행복과 성공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민기씨가 불렀던 ‘작은 연못’이란 노래가 생각납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붓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붓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 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깊은 산 속 작은 연못에 살던 물고기가 서로 싸웠고, 한 마리가 죽어 한 마리만 남아서 연못을 독차지하고 잘 살 것 같았는데 결국 물도 따라 썩어서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연못이 되었다는 노래입니다. 우리 사회도 성공과 행복, 돈과 명예를 찾아 서로에게 독을 품

었기 때문에 세상이 썩어가고 썩어가는 세상에서는 모두가 죽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1독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이들을 홀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배고픈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마리아의 노래 핵심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는 2000년 동안 ‘성체성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약속이, 주님의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신앙의 신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빵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한 몸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치고, 외롭고 가난한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 서울대교구 조재형 신부 -

주춧돌

제 1 편 하느님 공경

제4-1장 하느님의 어린양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요한 1,29-32).

< 주석 >

세상의 죄 : 여기서 “세상의 죄”가 단수로 쓰이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죄와 그것들이 야기하는 모든 것까지 포함한다(주석 성경, 신약, 358).

하느님의 어린양 : “하느님의 어린양”이라는 말은, 두 가지 전통적 표상을 혼합하여 예수님의 대속적(代贖的) 죽음을 상기시킨다. 첫째는, 자기는 죄가 없으면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을 어린양처럼 희생하는 ‘주님의 고통받는 종’의 표상이다(이사 52,13-53,12). 둘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하는, 파스카 때에 잡는 어린양의 표상이다(탈출 12,1-28 참조; 주석 성경, 상동).

< 설명 >

하느님의 어린양이란 무슨 뜻인가? 우리는 날마다 봉헌하는 미사 중에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한다. 구약에 어린양은 죄지은 사람의 죄를 모두 뒤집어쓰고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바쳐졌다.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양으로서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시고 대신 죽으셨다.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다.

< 교회 가르침 >

▶ 세례자 요한은 죄인들에게처럼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기로 하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표현한다. 요한은 예수님이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진 고난받는 종이시며, 동시에 첫 과일절 때 이스라엘의 구속을 상징하던 과일절 어린양이시라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섬기러 왔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오신 그분의 사명을 표현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608항).

< 어록 >

- ▶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수가 흐르는 강이 비롯하는 샘이 되었습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
- ▶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은 마귀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악습과 죄를 즐김으로써 마귀들과 함께 주님을 못박았으며, 지금도 못박고 있는 것입니다(성 프란치스코).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연구소, 2013 -